

대한민국 제1호 '익산 청년시청' 건립



1 익산 '청년시청' 착공식
2 청년주방 입주 선정 품평회
3 2020 청년거리문화제

역사가 있는 도시 문화를 담은 익산

새 익산시

익산시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마음껏 꿈을 펼치는 청년 도시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대한민국 제1호 '청년시청'을 건립한다. 취업과 창업부터 문화, 복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과 일, 여가 가능한 인프라를 도시 전반에 구축한다.

익산시는 청년들의 꿈의 무대가 될 '청년시청'을 중앙동 옛 하노바 호텔에 설립한다. 첫 단계로 지난 3월 26일 지역 청년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열었다.

청년시청은 총 4층 규모로, 1층에 코로나 블루와 취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오락 시설과 북카페 등을 꾸민다. 2층에는 스튜디오와 취·창업 컨설팅을 위한 상담실, 공유 주방 등을 갖춘다.

창업팀 입주 공간인 창업 보육실과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사무공간, 명예 시장실 등도 조성한다.

익산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 청년시청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마련한다.

시는 이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5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27억5천400만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청년 창업 기반을 마련 중이다.

총 102개 팀을 선발해 창업 초기 사업 기반 자금을 제공하거나 홍보비와 임차료 등 실질적인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위드 로컬(With Local) 청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SK E&S(전북에너지서비스), 창업 전문 교육기관인 '언더독스'가 참여해 팀당 최대 4천만 원을 주고 특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등을 하도록 시설자금과 임차료에 최대 2천600만 원,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청년 창업자에 임대료를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일하도록 매력적인 청년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 복지까지 책임지는 최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을 제공한다. 올해는 이미 8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55억100만 원(도비 포함)을 투입한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익산청년센터 '청숲'에서 다양한 역량 강화·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한 각종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 중이다.

일하는 지역 청년을 지원하는 익산형 근로 청년수당도 계속 지급한다.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준다.

결혼과 주거, 창업 등 청년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 수단으로 '청년자산 형성 통장'과 6개월간 월 50만 원씩 구직 활동비를 주는 '청년취업 드림카드' 등도 제공한다. ♣

